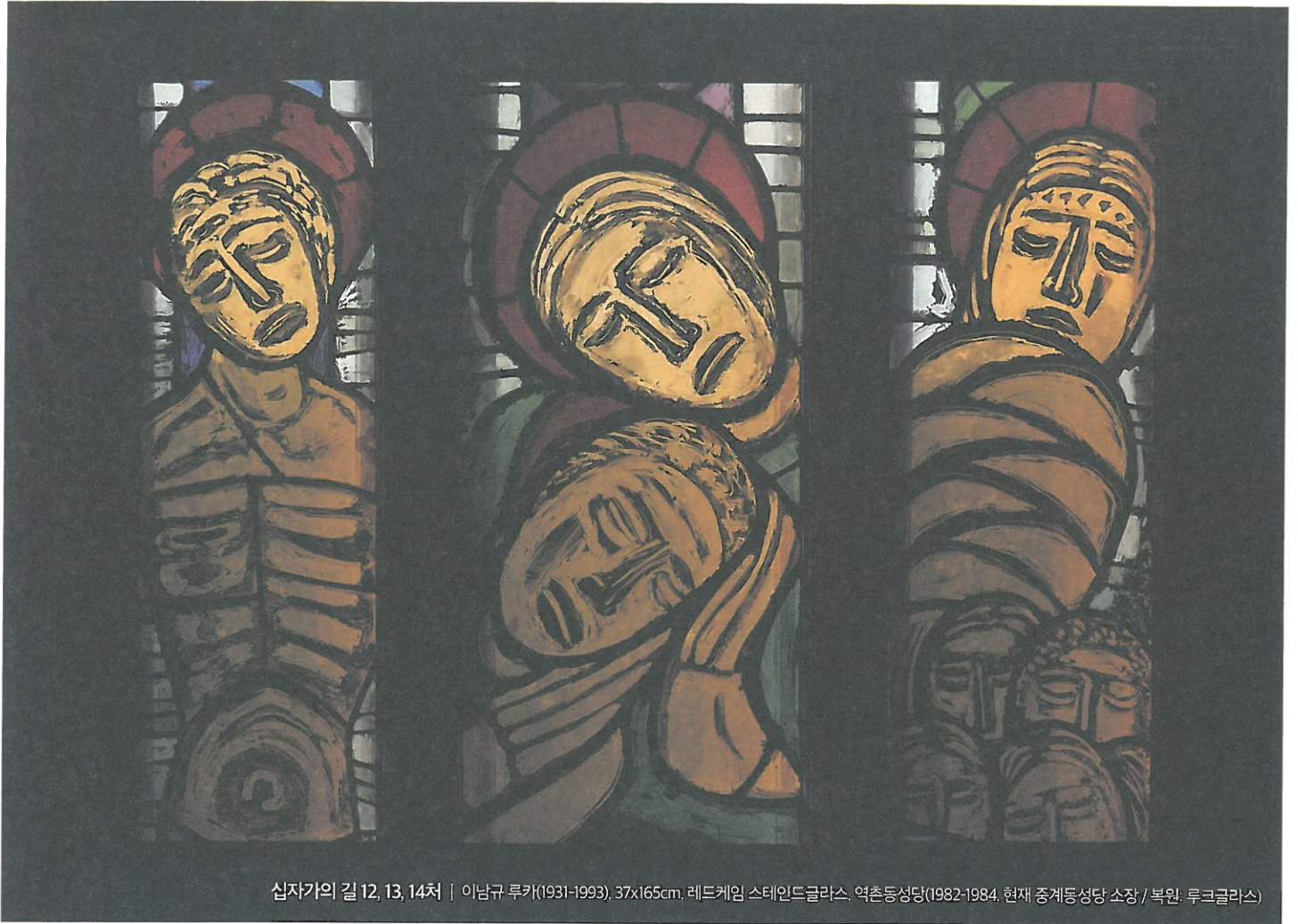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카카오채널 https://pf.kakao.com/\_xhGxjBxb | 인스타그램 @seoul\_jubo | 유튜브 @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십자가의 길 12, 13, 14차 | 이남규 루카(1931-1993), 37x165cm, 레드케임 스테인드글라스, 역촌동성당(1982-1984, 현재 중계동성당 소장 / 복원: 루크글라스)

### 입당 송 | 시편 43(42),1-2 참조

하느님, 제 권리를 찾아 주소서. 불충한 백성에게 맞서 제 소송을 이 끌어 주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서 저를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 의 하느님, 저의 힘이시옵니다.

### 제1독서 | 예제 37,12ㄹ-14

### 화답 송 | 시편 130(129),1-2.3-4.5와 6ㄴㄷ-7ㄱ.7ㄴㄷ-8(◎ 7ㄴㄷ)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 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

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 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 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 제2독서 | 로마 8,8-11

### 복음환호송 | 요한 11,25.26 참조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यो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

### 복음 | 요한 11,1-45<또는 11,3-7.17.20-27.33ㄴ-45>

### 영성체송 | 요한 11,26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 으리라.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 | 사회사목국 부국장

# 무엇이든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연예인이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포기는 김치 담글 때나 쓰는 말이다.” 포기라는 말은 배추를 썰 때나 쓰지, 자신의 삶을 단념하고자 하는 의사 표명하는데 쓸 일은 없고, 그런 자조적인 생각을 할 일조차 없으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연예인의 말에 여러분은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옛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 성공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감나무 밑에 누워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노력은 하지 않고 기회만 보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와 “감나무 밑에 누워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속담은 서로 정반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말에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가끔 신자들 중에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느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신자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신앙심이 깊어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하느님이라면, 또 길진 않지만 감히 제가 살아온 삶에 비추어 본다면 그분들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은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피조물은 노력한다 해도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을 발휘할 수 없지만 사람은 스스로 노력 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잠재 능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고, 옆의 사람과 서로 연대하고 협동해서 본인이 생각한 것 이상의 능력을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고 믿으며, 그런 경우를 실제로도 많이 봐 왔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봐도 에제키엘 예언자의 말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심을 잃지 않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에제키엘 예언자가 대단한 예언자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사라져버렸다면, 하느님에 대한 신앙심을 잃어버렸다면 그의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마르타와 마리아 그리고 라자로, 이 세 오누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저버렸다면 마르타와 마리아가 살면서 예수님을, 라자로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살면서 아직 또는 죽어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은총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삶과 죽음의 굴레에 스스로를 가두어 두었기에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순2주부터 5주까지는 아남규작가가 십자가의 길 작품을 만들면서 육상한 성경 구절을 나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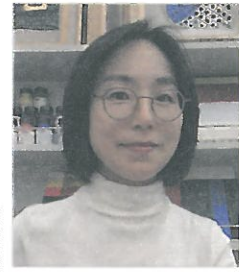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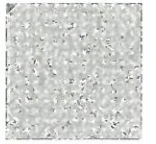
제12차 예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다  
“그리스도 예수는 ...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빌리 2,7-8)

제13차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시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고 말하였다.” (루카 2,48)

제14차 예수, 무덤에 묻히시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골로 1,24)

작품 설명

박정석 미카엘 | 루크클라스



유난이 글라라  
리움미술관 보존연구실

## 인연으로 이어진 신앙생활

저는 초등학교 1학년때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  
니다. 어머니께서 교리 공부와 봉사 활동 등을 하시며 세례  
를 위해 애써 주신 덕에 저희 삼남매는 일본 오사카의 한  
인 성당에서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아버지는 성당까지 운전만해주실 뿐 세례를 받지는 않으  
셨습니다. 그렇게 약 2년간의 오사카 생활을 마치고 떠나  
면서 대모님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한인 성당 사무실에 문의를 했으나 성함만 알려줄 뿐  
연락처는 알 수가 없다고 하여, 그저 기도 중에 가끔 기억  
할 뿐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또다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  
니다.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도쿄 한인 성당을 찾아갔습니  
다. 유학생부터 주재원 가족, 교민, 한국에서 오신 수도자  
들이 다수 계셨습니다. 외로운 유학생에게 매주 한국어로  
드리는 미사는 마음의 위안이자 안식처였습니다.

하루는 기숙사에서 전철역으로 걸어가는데, 며칠 전 한  
인 성당 제단 위에 계신 것을 보았던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가가서 “신부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소중한 인연의 시작이었음  
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 신부님이 사시던 예수회  
사제관이 제 기숙사와 아주 가까이에 있어 종종 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후 몇몇 천주교인 유학생과 정기적으로 철  
학과 성서 공부를 하며 지냈고, 가끔 다 함께 피정을 가기도  
했습니다. 수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과 개인적인 교류가  
없었던 저에게 수도자의 생활은 큰 충격이자 자극이었습니  
다. 일본 생활보다도 신부님들의 삶이 훨씬 더 새로운 세계  
로 느껴졌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규칙적인 공동  
생활 그리고 정제된 삶이 주는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습니  
다. 한편 인간다운 면모를 엿보며 수도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약 7년이 지나 신부님과 저는 비슷한 시기에 공부를 마  
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신부님과 맺은 인연은 귀국 후에도  
계속 이어졌으며, 또 다른 인연의 끈이 되었습니다. 그 중  
특히 놀랍고 경이로운 일은, 친정 아버지께서 신부님의 소  
개로 만나게 된 한 신부님의 권유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  
다. 또 신부님을 통해 만난 한 자매님은 제 신앙생활의 큰  
등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크고 작은 고비가  
올 때 마다 제 주변으로 뻗은 인연의 끈이 저를 잘 끌어주  
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인연의 끈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역시나 40여 년 전  
이 떠오릅니다. 낯선 나라에서 손수 성당 문을 두드려 세  
자식과 함께 세례성사를 받으셨던 용감한 어머니를 생각  
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통해 시작된 인연의 끈이, 신부님  
을 비롯한 많은 소중한 만남으로 이어져 오늘날까지 저를  
지탱해주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실지 모를 저의 대모님을 기억하며 기도  
드립니다.

한컷으로 보는  
교회 가르침 '전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전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교회의 살아 있는 교권에만 맡겨져 있다.

- 가톨릭교회 교리서 85항 -

그림 | 송현철 안토니오

#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최현순 데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우주는 얼마나 클까요? 우주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 대부분 억 단위입니다. 지구는 태양계의 한 행성에 불과하고 우주에는 지구가 속한 은하와 같은 은하들이 천억 개 이상이 있으며 우주의 크기는 47억 광년이지만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삶이 답답할 때 이런 이야기는 잠시 우리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이 우주의 창조주라고 고백합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탄생,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교는 하느님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라고 고백합니다. 이성도 신앙도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성을 통한 탐구는 신앙에 도전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천지의 창조주’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성경이 자연과학 서적이 아니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성경은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창세기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강조합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창조 행위에 대하여 ‘바라(כָּבַד)’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주체적이며 자유로운 행위, 인간이 감히 할 수 없는 전능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라’는 하느님의 하느님이심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시간 까지도 창조물이라고 말합니다.

마카베오기 하권 7장 28절은 “하느님께서 이미 있는 것에서 그것들을 만들지 않으셨음을 깨달아라.”라고 합니다. 이로부터 교회는 철학적 표현을 사용해서 ‘무로부터의 창조’를 말해왔습니다. 이 말은 물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하느님의 근본적 특성을 표현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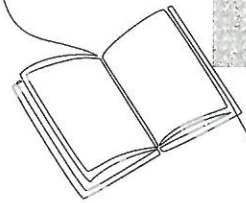
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어느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물질적이든 영적인 것이든 어떤 조건에도 매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하느님의 절대 자유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절대 자유는 하느님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또 하나는, ‘무엇을 가지고’ 창조하셨는가 아니라 창조가 하느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운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교리는 다음 몇 가지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느님과 창조물 사이의 구분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피조물을 신성시하는 민족들이 많았는데, 구약성경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사람들이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받들어 섬긴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로마 1,25 참조) 찬미받으셔야 할 분은 오로지 하느님이라는 것을 신구약 성경 모두 강조합니다.

둘째, 오직 하느님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권위를 가지십니다. 인간은 창조주께 피조물을 돌보라는 명령을 받은 관리인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지구 환경을 보호할 의무도 도출됩니다.

셋째,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느님이 보시기 “좋으셨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던 것은 딱 하나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이원론, 물질세계를 악하게 보는 그런 원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자유와 사랑 안에 있게 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 그리스도교 세례의 특징인 성령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아폴로라는 사람이 에페소에 도착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사도 18,25)고 루카는 전해 줍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가 따로 있다는 말인지 조금은 의문을 자아내는 내용입니다.

세례라는 말은 ‘물에’ 넣다, ‘목욕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실제로 유대교에는 물로 몸을 씻는 정화 의식이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요르단 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새로운 윤리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 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마르 1,8) 이를 통해 세례자 요한의 세례와 그리스도

“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의 용서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무덤에 묻힘과 그분의 부활에  
실제로 참여한다는 의미  
”

의 세례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요한의 세례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의 회개를 드러내는 참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그리스도의 세례는 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세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의 용서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무덤에 묻힘과 그분의 부활에 실제로 참여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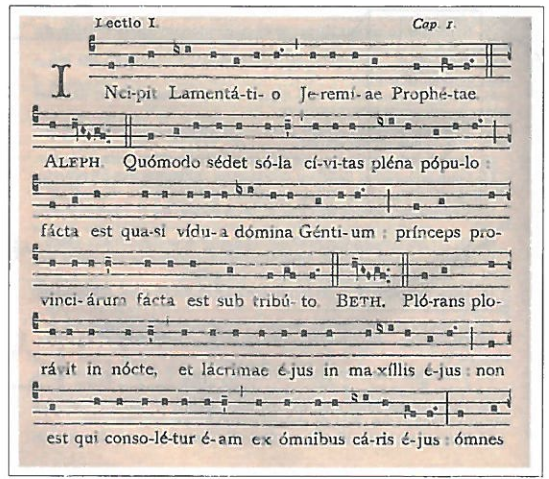
사도 바오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로마 6,4) 결국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며, 이제 나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로마 5,5), 우리를 구약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상속자가 되게 합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깊은 다스림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줍니다.

세례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몇 개월에 걸친 교리 과정을 이수했기에 받는 통과 의례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삶의 대전환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대전환과 변화의 중심에 바로 성령께서 계십니다.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 알려줍니다.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로마 8,26)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께 도움을 청해야 하고, 성령의 열매(갈라 5,22-23)를 맺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의 새벽 전례, 테네브라(Tenebrae)



애가(Lamentationes), 성목요일 제1밤기도 제1독서의 시작 부분



최호영 요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음악과 교수 · 주교좌 명동대성당 성음악 감독

성목요일, 성금요일, 그리고 성토요일 새벽, 아직 어둠이 짙은 성당 제단(제대)에 15개의 촛불이 켜집니다. 가운데 촛불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각각 7개씩 15개의 촛불이 삼각형 모양으로 빛을 밝힙니다.

첫 번째 밤기도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시편을 노래하고 나면 촛불 하나를 끄고, 두 번째 시편 후에도 다른 촛불 하나를, 그래서 세 번째 시편이 끝나면 세 개의 촛불을 끕니다. 이어서 첫 번째 독서를 노래하고 응송으로 화답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독서와 각각의 응송도 이어집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밤기도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밤기도가 계속됩니다. 역시 세 개의 시편이 끝날 때마다 하나씩 총 세 개의 촛불이 꺼지고, 세 개의 독서 그리고 세 개의 응송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밤기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세 개의 밤기도가 끝나고 나면 9개의 촛불이 꺼지고, 이어서 아침기도를 노래합니다. 전통적으로 다섯 개의 시편을 노래하는데, 역시 각 시편이 끝날 때마다 촛불이 하나씩 꺼져갑니다. 모든 기도가 끝나고 나면 제단에는 중심에 있던 촛불 하나만 남게 되고, 어느새 태양이 어둠을 이기고 떠올라 성당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성전 전체를 빛(Lumen)으로 밝게 비춥니다.

이렇게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동트기 전, 어둠 속에서 바치는 전례를 '테네브라(Tenebrae / 어둠, 암흑)라고 합니다. 세 개의 밤기도는 각각 세 개의 시편, 세 개의 독서와 응송, 그리고 아침기도는 다섯 개의 시편과 크리스투스 팩투스 에스트(Christus factus est, 그리스도 찬미가 / 필리 2장), 침묵으로 바치는 주님의 기도(Pater noster), 미제레레 메이(Miserere mei / 시편 50편)로 구성됩니다.

삼 일간의 테네브라(Tenebrae)에서 첫 번째 밤기도 독서에서는 애가를, 두 번째 밤기도에서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저서를, 그리고 세 번째 밤기도에서는 바오로 사도의 편지를 노래합니다.

'애가'(哀歌, Lamentationes)는 예루살렘의 파괴와 남유다의 멸망을 슬퍼하는 구약성경의 성문서입니다. 기원전 587년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는 예루살렘을 파괴했으며 백성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갔는데, 고향에 남은 이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참회와 탄원의 전례를 거행하면서 특히 애가를 노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애가의 저자를 예레미야 예언자로 간주하였기에 '예레미야의 애가'라고 합니다.

성목요일 제1 밤기도의 제1독서는 애가 1,1-5을 노래하는데, 먼저 "예레미야 예언자의 애가가 시작됩니다."(Incipit Lamentatio Jeremiae Prophetae)라고 노래한 후 1절이 이어집니다.

“

알레프(ALEPH). 아, 사람들로 붐비던  
도성이 외로이 앉아 있다.  
못 나라 가운데에서 뛰어나던 도성이  
과부처럼 되고 말았구나.

모든 지방의 여왕이  
부역하는 신세가 되어 버렸구나(1절).  
베틀(BETH). 밤이면 울고 또 울어  
뺨 위에 눈물이 그치지 않는구나.

그 모든 애인들 가운데  
위로해 줄 자 하나 없고,  
벗들은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2절)

”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슬퍼하는 예레미야 | 램브란트(1630년 작)

# ‘영성’이 뭔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홍보국장

다시 영성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영성’을 ‘하느님과 함께 있는 삶’이라 말씀드렸고, 느끼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일상의 심리 차원과 연결하여 영성을 경험한다고 말씀드렸습디만, 아직도 영성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영성’이 뭔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영성이라는 말마다 자체의 뜻은 단순하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영성이 뭔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사는 것이니까요.

예전 어느 방송국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에서 ‘서양인은 명사로 세상을 보고, 동양인은 동사로 세상을 본다.’는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를 영성에 대입하면, ‘영성’(명사)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한 후에야 영적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과 ‘영적으로 사는’(동사) 것을 통해 영성이 뭔지 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 사이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꼭 동양의 사고방식이어서가 아니어도, 이 중에서 두 번째가 더 성서적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접근 방식입니다. 그리스도교 삶과 신학에서 영성(spiritualitas)이라는 개념(명사)이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이를 살기 위해 영적 삶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영적인 삶에 대한 가르침과 권고(동사)가 있었고 나중에야 영성이라는 개념이 쓰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성’이 뭔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기

만 하면 됩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영성은 삶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영성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성 개념 자체도 홀로 쓰이기보다 ‘영성 생활’, ‘영적 삶’ 등의 표현처럼 우리의 삶과 늘 연결되어 쓰입니다. 영성을 학문으로 다루는 영성 신학에서도 일상의 구체적인 체험을 중요한 요소로 연구합니다.

그럼, 영성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우리는 바오로 사도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영적 인간과 육적 인간, 영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과 육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 서간 곳곳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로마 8,2-16; 갈라 5,16-26 외 참조) 바오로 사도의 신학은 다른 기회를 통해 배우기로 하고, 여기서는 영성을 사는 모습의 몇 가지 구체적인 부분을 차차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영성은 개념이 아니라 삶입니다. 그러니, ‘영성’이 뭔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영혼을 풍족하게 하고 또 만족시키는 것은 풍부한 지식이 아니라, 사물의 내용을 깊이 깨닫고 맛보는 것이기 때문이다.”(로울라의 성 이냐시오, 『영신수련』 2항)

## 4월 2일(주일)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로 사순 시기 이웃 돕기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 웅기장학회 기금 출연 안내

웅기장학회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소망과 꿈이 담겨있는 장학회입니다 아시아, 특히 북방선교에 투신할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장학회를 함께 키우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신언 몬시뇰 / 이사장: 정순택 대주교

웅기장학회 기금 출연하는 방법: 일시불 또는 정기적으로 정

한 금액을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에게는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드립니다

문의: 02)727-2525 사무국

계좌: 국민은행 375301-04-076713, 우리은행 454-037208-13-001, 신한은행 140-008-715396, 농협 386-01-012782 /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35년 3월 30일 이종순 요셉 신부(46세)
- 2022년 4월 1일 유봉준 토마스 신부(92세)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 교구청 알림

#### 서울대교구 사목상담 2박3일 대침묵 피정

주제: 나는 내 인생을 너는 네 인생을  
 때, 곳: 4월14일~16일, 아론의 집  
 지도: 문중원 신부 / 문의: 010-6224-2920 강명인

####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 집전: 송영호 국장 신부, 김윤상 차장 신부(해외선교봉사국)  
 때, 곳: 4월13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2층 205-2호 / 문의: 02)727-2407, 2409

#### 전례학교(이론)

대상: 전례봉사자 / 회비: 3만원(4월13일 마감)  
 때: 4월20일~5월18일(5주간)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6 사목국 교육지원팀

#### 명동대성당 가톨릭미술이야기 도슨트 프로그램

홍보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명동대성당 미술품 도슨트 프로그램 상반기 정기일정 안내  
 때: 4월12일~6월4일 매주(일·수) 오후 2시  
 신청방법: 도슨트 홈페이지(cc.catholic.or.kr/docent)에서 3월25일(토)부터 신청가능  
 소요시간: 약 1시간 / 문의: 02)751-4100 홍보위원회

#### 가톨릭교육자회 & 가톨릭교육자의 날 안내

##### 1) 가톨릭교육자회 안내

가톨릭교육자회는 서울 초·중·고등학교 신앙인 교직원들을 위한 모임으로, 참사승이신 그리스도를 닮은 교육자가 되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단체입니다 초등학교 교직원을 위한 <초등교육자회>, 중·고등학교 교직원을 위한 <중등교육자회> 두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인 미사·피정·성지순례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초대합니다

##### 2) 가톨릭교육자의 날 신청

내용: 서울 가톨릭 초·중·고등교육자들이 다 함께 모여 미사·특강을 통해 위로받고 신앙을 다지는 시간  
 대상: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중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때, 곳: 4월22일(토) 9시~16시, 계성고등학교(길음동)  
 미사: 유경춘 주교(주례), 학교사목부 사제단  
 회비: 3만원 / 신규가입 안내 및 참가신청 문의: 02)566-5456, 02)553-7320 학교사목부

####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김시숙 개인전: 1전시실  
 재단법인 기쁨나눔 전시회: 2전시실  
 관솔 십자가와 바느질 이야기: 3전시실  
 전시일정: 3월22일(수)~30일(목)

#### 2023년 월요 성경통독

내용: 친구약 성경 전체 / 강역: 조창수 신부  
 때, 곳: 1월2일~12월25일 매주(월) 13시~16시(90분 강의 + 미사 / 온라인 동시 강의), 가톨릭회관 3층 강당  
 회비: 연회비 12만원 / 문의: 010-7586-5425(문자)

#### 온라인 구역반장학교

대상: 구역장·반장 / 교육: 에드워드 온라인 교육  
 때: 4월17일~5월31일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회비: 2만원(4월10일 마감)  
 문의: 02)727-2063 사목국 교육지원팀

#### 사목위원 양성 연수

대상: 본당 사목위원(회장단 포함)  
 때, 곳: 1차 4월28일(금) 13시~17시, 2차 4월29일(토) 13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회비: 2만원(4월21일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3 사목국 교육지원팀

#### 민족화해위원회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된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62차 미사 3월28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주 기억할분당: 덕원자치수도원구 고산본당, 원산본당  
 미사 후에 한반도 평화와 복된본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 2) 평화나눔연구소 창립 8주년 기념 세미나

주제: 정전 70년의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 곳: 3월30일(목) 13시~18시, 서울대교구청 502호  
 관심있는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 3) 후원회 미사 / 문의: 02)727-2415

대상: 후원회원 및 누구나  
 때, 곳: 3월31일(금)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소성당)

#### 향심기도 월피정 / 문의: 010-4565-8898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지도: 이승구 신부 / 회비: 1만원

직장인	4월2일(일) 13시30분~16시30분
일반인	4월3일(월) 13시30분~16시30분

####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4월11일(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김명남 베드로, 양정숙 요셉파나, 정운선 엘리사벳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 사목국 직장사목팀

##### 1) 명동 직장인 금요미사 안내

때, 곳: 매주(금) 12시15분,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 2) 직장사목팀 성가대 AESTUS CHOIR 단원모집

대상: 20~40대 직장인 가톨릭 신자  
 모집인원: 각 파트 00명 / 문의: 010-5760-6638 단장  
 연습·미사: 매주(금) 19시30분·돌째주(금) 20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해설이 있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 도보순례 접수안내

때	코스
4월4일(화) 오전 9시부터	2코스 생명의 길 (가회동성당~당고개 순교성지)
4월8일(토) 오전 9시부터	2코스 생명의 길 (가회동성당~당고개 순교성지)
4월10일(화) 오전 9시부터	3코스 일치의 길 (새남터 순교성지~삼성산 성지)

회비: 1인 7천원 / 문의: 02)2269-0413

신청: 3월27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http://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영성심리아카데미

접수: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 참조

때: 4월11일~6월8일

문의: 02)727-2126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특강) 가톨릭 영성을 통한 가톨릭 믿음과 신앙활동의 다양한 문화(3주)	최대환 신부
(특강)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법(4주)	윤제연 박사
(특강) 성가정의 가족들의 모든 대하는 기도이며 영성상담입니다(4주)	김하늘 배우, 유지현 박사, 최현정 아나운서, 류시현 방송인
마음을 치유하는 신앙인 글쓰기 학교(5주)	허영엽 신부, 신달자 시인, 정호승 시인, 이지나 작가
마음수련을 위한 그림일기(4주)	김현정
미술치료(4주)	신혜영
바이올린(8주)	뮤지컬(8주)
해금(8주)	김수연
	정겨운
	유기(4주)
	최희영



**인문단체 알림**

**모임**

**18양천지구 성령 피정**

강의·미사: 배형진 신부 / 문의: 010-9074-6527  
 때, 곳: 4월3일(월) 13시~16시30분, 양천성당

**일본 가고시마 성지순례**

곳: 가고시마, 북해도, 아키타, 나가사키(3박4일)  
 회비: 115만원·75만원 / 문의: 010-3645-9028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낙태 후 화해 피정(착한목자수녀회)**

때, 곳: 3월31일(금)~4월2일(일), 명상의 집(우이동)  
 회비 없음 / 문의: 010-6637-1366 고 마르타 수녀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4월1일~30일 / 문의: 010-4198-7970

**2023년 성모술술마을 치유대(對)피정**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때: 매일 둘째주(금~일) 4월7일~9일, 5월12일~14일, 6월9일~11일(2박3일) / 문의: 010-3209-3955

**쉬운전례 3(성무일도·성독) / 문의: 010-9816-0072**

대상: 만 40세 미혼 여성 / 회비: 4만원  
 때: 4월15일~6월3일 매주(토) 15시~17시  
 곳: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본원(미아리, 주척)

**40일 작정기도 감사 대피정**

오전 강의-양승국 신부, 오후 강의, 파견 미사  
 때: 4월3일 10시30분~17시30분  
 곳: 부천시 송내동 366-5 지혜의 샘 5층  
 문의: 010-5454-1871, 010-3248-9705 지혜의 샘

**4월 피정 및 미사(천주교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문의: 010-6281-8626, 02)777-1773

토요 피정과 성모신심 첫미사	4월1일(토) 12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장재봉 신부
성가정 영성 피정	4월5일(수) 12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김재덕 신부, 이현주 회장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자연 피정·제주 면형의 집 피정센터

자연순례	4월3일~5일, 5월12일~14일
성지순례(추차도)	5월6일~9일, 5월18일~21일, 5월27일~30일, 6월10일~13일, 6월17일~20일

**예수수도회 4월 피정**

카카오톡 채널: 빛더하기\_예수수도회 / 010-2314-1645

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피정	대상: 딸 45세 이하 4월22일(토)~23일(일), 서울 오류동
청년·3545 피정	대상: 45세 이하 미혼 여성 4월14일(금)~16일(일), 보은 영성의 집

**혼인성소(새혼 포함)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4월14일(금)~17일(일)·5월5일(금)~8일(일)·5월19일(금)~22일(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주척, 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64 글라라

**예수성심 위로의전교회 모임 / 문의: 010-3275-8707**

때, 곳: 매일 첫번째(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미사: 오전 10시30분·낮 12시 / 본회는 예수성심 신심을 전파하고 가난한 성당과 공소 및 국내외 선교사를 지원하는 영적 물적 후원회입니다

**제주 성 이시들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순례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  
 자연순례: 4월1일~3일·4월10일~12일·4월13일~15일·4월17일~19일·4월22일~24일·4월26일~28일·10월1일~3일 /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제주 자연 피정·제주 성 이시들 피정센터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성지순례**

문의(접수): 02)6253-3373, 010-8360-3700  
 1) 젊은이 성체 조배의 밤 사순 성지순례  
 대상: 청년 30명 / 회비: 3만원  
 때: 4월1일 오전 9시30분(명동 출발)~오후 5시  
 곳: 폰펜투알 프란치스코 수도원(양평), 마재성지  
 2) 일본 나가사키 성지순례(3박4일)  
 대상: 일반 신자 33명 / 회비: 150만원(공동 경비 포함)  
 때: 5월15일~5월18일 / 일정표 홈페이지 참조

**교육**

**서울대교구 북방선교회 중국어반(33차) 수강생 모집**

곳: 가톨릭회관 202호 / 회비: 7만원(3개월, 교재비 별도)  
 인원: 기초반 10명, 초급반 10명, 중·고급반 약간명  
 접수: 3월26일~4월6일(선착순) / 문의: 010-6219-1575  
 개강: 4월4일(화) 기초·초급반, 4월6일(목) 중·고급반

(화) 기초반 10시30분~13시	초급반 14시~16시30분
(목) 중급반 10시30분~13시	고급반 14시~16시30분

**국악성가연구소 수강생 모집 / 문의: 02)558-2004**

국악성가 무료강좌	매주(수) 14시 / 누구나 환영
국악성가 반주장구	매주(목) 13시30분 / 초보자 환영
국악성가 무용	매주(금) 15시

**예수님께 인생을 묻다-평신도 영성강좌**

개강: 4월13일(6주) / 녹화강의(일주일간 수강)  
 회비: 8만원(청년할인 50%) / 문의: 02)333-9898 한국CLC

4월13일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현재우 (종교학 박사, 서강대·수원가톨릭대)
4월20일	예수님께 인생을 묻다	
4월27일	오병이어, 사랑의 힘	
5월4일	공동체로 초대받은 우리	
5월11일	세상으로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	
5월18일	사랑의 질서와 영적훈련	

**음악심리상담사자격 초급반**

때, 곳: 5월3일~17일 매주(수) 13시 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 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미사반주자 교육(9지구오르간교육연구소)**

곳: 천호동성당 내 / 문의: 010-3203-8183

**미사 반주와 전례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문의: 010-4964-5274 동작14지구(혹석동)오르간교육

**커피비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4월3일부터 (일)~(토) 10주  
 주최: 아쿠아노오르간연구소 / 문의: 02)338-3793

**'다함께 성가' 발성교실 / 문의: 010-9842-8818**

가톨릭평화방송TV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피나음악원(주척, 신촌)

**새천년복음화학교 1단계 148기 개강**

때: 3월27일(월) 14시·3월30일(목) 19시  
 곳: 가톨릭회관 5층 / 회비: 7만원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서울대교구 35기 아버지학교 지원자 모집**

때, 곳: 4월16일~5월14일 매주(일) 13시30분~18시 30분(5주간), 염리동성당 / 회비: 10만원  
 문의(접수): 0505-503-7080(jsyeom@hanmail.net)

**'오르프'와 함께하는 힘, 움직임 / 문의: 02)924-3048**

대상: 청년, 직장인 / 카카오톡 ID: k\_orff  
 때: 4월11일~5월2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곳: 성골롬반의방선교회(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금요영성 특강**

주제: 가톨릭 신자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강사: 손희송 총대리 주교  
 때, 곳: 3월31일(금) 16시~17시, 서소문성지 역사 박물관 B1 명례방 / 문의: 02)3147-2402

**2023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신학 과정 추가 모집**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통신(우편)으로 공부  
 추가모집: 3월31일(금)까지 / 우편접수 가능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모집**

**서울대교구 국악성가 우리소리합창단 단원 모집**

국악성가 함께 봉사할 단원 모집 / 010-8615-0402  
 연습: 매주(월) 19시, 전철 7호선 강남구청역 4번 출구

**수아비시합창단 단원 모집(제9회 연주회 준비)**

오디션: 매주(월) 연습(19시30분~21시30분) 전 자유곡  
 곳: 공간음악(전철 7호선 장승배기역) / 010-3731-6905  
 연주회곡: J.G.Rheinberger-Requiem in d op.194

**성프란치스코 하프 앙상블 단원 모집**

모집파트: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 콘트라베이스, 클라리넷, 편곡 / 문의: 010-9544-9317

**미사**

**오기선요셉장학회 월례미사**

집전: 김정수 신부 외 사제단 / 문의: 010-8982-9819  
 때, 곳: 3월30일(목) 오후 3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3월28일(화) 11시, 미래사목연구소(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절두산순교성지 마리아연례회 미사 / 문의: 02)3142-4434**

때, 곳: 3월31일(금) 11시30분, 전철 2·6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내용: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연도 및 미사

**3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3월29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성서가족 열린미사(목3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흥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매일 넷째주(일) 3월26일 15시  
 곳: 목3동성당 및 온라인 / 유튜브 '열린미사' 검색

**평화묘원 한식미사(전농동성당)**

평화묘원(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소재)의 2023년도 한식미사를 아래와 같이 집전하고자 하니 묘주 분께서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때, 곳: 4월1일(토) 오전 11시, 평화묘원(내) 잔디 미사장  
 집전: 전농동성당 주임 신부 / 문의: 02)2241-7841, 2

**웅기장학회 월례미사**

때, 곳: 3월27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주례: 성세현 신부, 박신언 문시놀 공동집전  
 강론: 김한석 신부 /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서 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합니다  
 문의: 02)727-2525 사무국

**안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문의: 국내임양상담: 02)764-4741~3(www.holyfac.or.kr)

**가톨릭파크골프공동체 회원 모집**

대상: 가톨릭 신자 또는 교리교육 중인 분  
 회비: 연 5만원 / 문의: 010-5408-6308 사무국

**나루 상담센터(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대상: 영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곳: 논현동 / 문의: 010-9139-1937 윤희순 수녀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개인(우울·공황·불안·강박·트라우마·해리현상 등), 가족 및 부부갈등, 종합심리검사

**가톨릭여성연합회 3월 정기월례회**

미사·특강: 김명섭 신부(대신학교 지도신부)  
 때, 곳: 3월28일(화) 10시30분,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문의: 02)778-7543

**삼양동 선교본당 재활용매장 '살림'**

의류·가방·신발·생활용품·가전제품을 기증 받음  
 재활용 사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도움  
 기증 수거방문 기준: 2상자 이상 / 문의: 010-5751-3978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클라라봉쇄수도원은 보수공사로 유지가 어려워 재건축이 불가피합니다 도움을 겸손히 요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정신분석적 자기이해와 자아성장집단  
 때: 4월12일~5월31일 매주(수) 13시~15시30분(8주)  
 집단형태: 반구조화 대면 집단상담  
 돕는이: 이인숙(심리학 박사, 이인심리상담연구소장)  
 곳: 명동 / 문의: 02)726-0700(www.jiscen.or.kr)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왜 우리는 제주 4.3을 말해야 하는가?**

때, 곳: 4월1일(토) 15시~17시30분, 예수회센터  
 출연: 강우일 주교, 현기영 작가, 김종민 4.3중앙위원, 한상희 박사 / 회비 없음  
 문의(접수): 064)739-0951, 010-3884-0951 (문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소,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응암동성당 '요셉 추모와 축복의 벽' 기도패 신청**

추모와 축복패 접수 / 사용 기한: 무기한단, 20년 이후 재건축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대상: 고인(추모패), 세상을 살고 있는 교우·비신자 등(축복패) / 사용료: 1인패 100만원, 2인패 150만원  
 혜택: 합동 위령미사 봉헌(명절·위령의날), 매월 1회 추모와 축복미사 봉헌 / 문의: 02)2021-2700 사무실

**70주년 기념 행사-첫토요일 신심미사**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파타마의 세계 사도직  
 1) 파타마의 성모님께 한국을 봉헌한 70주년 기념 행사  
 미사 주례: 정순택 대주교(서울대교구장)  
 때: 3월28일(화) 12시30분~16시  
 곳: 명동대성당 대성전 / 강사: 이병근 신부(인천교구)  
 2) 첫토요일 신심미사  
 때: 4월1일(토) 9시30분~12시  
 곳: 가톨릭회관 3층 / 내용: 켈기도, 미사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유관단체 알림**

**한국 키로(CHIRO Korea) 모집**

십시일반으로 부모가 자녀를 직접 신앙 양성하는 교향청 평신도가 정생명부가 승인한 FIMCAP 소속의 키로 공동체에 초대합니다  
 때, 곳: 매일 첫째·셋째주 10시~13시, 햇살사목센터(종로구 혜화동, 주책) / 문의: 02)744-0840  
 모집인원: 초1(5명), 초2(6명), 초3(4명), 초4(2명), 초6(4명) / 선착순 모집(인터뷰를 통해 선발)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남녀 요양보호사 / 주40시간, 기숙사 가능

**성가복지병원 직원 모집 및 자원봉사자(의사) 모집**

내용: 자원봉사자 의사(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신경정신과), 직원 간호사 0명·간호조무사 0명 모집  
 (토) 진료 / 문의: 02)940-1503(hf1990@dau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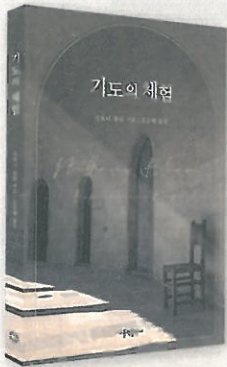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돈보스코 여자 재속회	수시	영등포구 신길6동 여의대방로65	0507-1306-1505
성골롬반외방선교회	4월3일(월) 10시	서울 분부(동소문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02)924-3048(korvocation@columban.or.kr)
성심의 프란치스코 수녀회	수시	수녀원(서울)	010-8563-6875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수시	상의 후 결정	010-3271-7974
천주교서울교구제선교회	수시	선교회(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 수녀회	3월26일(일)	아프리카잠비아 선교후원회(가톨릭회관 526호)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한국외방선교회	4월2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 2023년 3월 추천 도서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에페 5,8)

신간



## 기도의 체험

안토니 블룸 지음 | 14,000원

안토니 블룸이 말하는  
응답 받는 기도의 핵심

故 김수환 추기경이 추천한  
하느님과 의 내적 만남을 위한 입문서

신간



## 열매와 은사

토마스 키팅 지음 | 16,000원

말씀과 상징을 통해  
하느님의 영원한 현존을 깨닫다

열매와 은사를 통해 주님이 드러내시는  
우리를 향한 무한한 관심과 자애

사순 시기 추천 도서



##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데이비드 나이트 지음 | 3,500원

구원의 열쇠,  
십자가의 길을 바치는 은총의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사순 시기 추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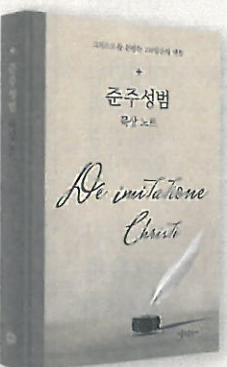
##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준비하는 고해성사

교황청 내사원 지음 | 10,000원

마음의 온전한 평화를 위한  
양심 성찰의 시간

하느님과의 진정한 화해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힘을 얻다

사순 시기 추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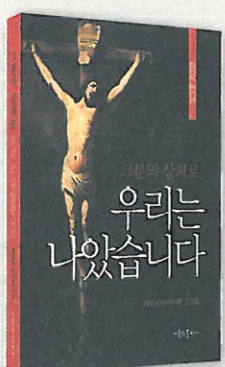
## 준주성범 묵상 노트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지음 | 14,000원

묵상과 필사를 한 권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100일

꼭 새겨보아야 할 말씀으로 완성하는  
나만의 영적 독서 노트

사순 시기 추천 도서



## 그분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습니다

정진석 추기경 지음 | 14,000원

성경을 다각도로 조명하며 그려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깊이 묵상해야 할 이야기



제2273(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li> <li>주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li> </ul>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li> </ul>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 9구역 미사 봉헌

일시 : 3월 30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노영숙 펠리치타스 자매님 댁

### ◎ 전신자 부활맞이 대청소 및 국수잔치

일시 : 4월 2일(주일) 11시 교중미사 후  
개인 준비물 : 걸레, 고무장갑

### ◎ 성삼일 · 주님부활대축일 전례 안내

4월 6일(목) 주님만찬성목요일	<b>오후 8시</b> - 주님만찬저녁미사 (미사 후 성체조배) * 성체조배 시간표는 게시판을 확인바랍니다.
4월 7일(금) 주님수난성금요일	<b>오후 3시</b> - 십자가의 길(단식, 금육) <b>오후 8시</b> - 주님수난예식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헌금)
4월 8일(토) 파스카성야	<b>오후 8시</b> - 파스카성야미사 (준비물 : 부활절예물) * <b>오후 3시 어린이미사 없음</b>
4월 9일(주일) 주님부활대축일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2시(주일학교), 오후 6시 * <b>오전 7시 미사 없음</b>

\* 성삼일(4월 6일~8일)동안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 ◎ 십자가의 길

일시 : ~ 3월 31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4월 7일(금) 오후 3시

### ◎ 청년 십자가의 길

일시 : ~ 4월 2일(주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6시 미사 후

### ◎ 아치에스 행사

일시 : 3월 26일(주일) 오후 1시 대성전

### ◎ 여성 울뜨레야

일시 : 3월 28일(화) 10시미사 후 304호

### ◎ 성모 신심 미사 : 4월 1일(토) 오전 10시

### ◎ 연령회 미사

일시 : 4월 4일(화) 오전 10시  
매월 첫번째 화요일 10시에 연령회(선종하신분들을 위한 미사)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 돌아가신 연령을 위해 연도를 바칩니다.

### ◎ 연성회(70대) 정기모임

일시 : 4월 13일(목) 오후 5시 30분 / 201호  
\* 2부에는 식사가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송경원 베드로 회장 (010-5228-4707)

### ◎ 예비신자는 3월 26일(주일)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교리반	장소
주일반 (오전 9시)	교육관 304호
수요반 (오후 8시)	

### ◎ 성서 백주간 그룹원 모집

3년간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를 원하는 신자분들 누구나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작 : 4월 11일(화) 오후 7시미사 후  
문의 : 봉사자 (010-2734-0853)

### ◎ 문화학교 선생님 모집

과목 : 미술, 캘리그래피  
문의 : 플로라 (010-5471-2416)

### ◎ 초등부 주일학교 보조 반주자 모집

초등부 주일학교 아이들의 반주를 도와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연습 및 미사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문의 : 보좌신부 (010-3854-1317)

### ◎ 군입대 자녀 부활선물은 4월 2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 ◎ 교무금 책정 현황 (2023. 3. 19)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남부세대 (납부율)	2022년 책정율	2022년 납부율
2,073	667 (32.2%)	621 (30%)	43.8%	41.8%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연령회 감사헌금

고 문병향 요셉 상가 ..... 삼백만원

### ◎ 감사헌금(3월 13일~19일)

익명 ..... 일십만원    이중호 ..... 이십만원  
최일곤 ..... 일십만원    곽창순 ..... 일십만원  
김은순 ..... 오만원    익명 ..... 일십만원  
함영동 ..... 일만원    故문병향 ..... 일백만원

### ◎ 우리들의 정성(사순 제4주일)

교무금 ..... 9,540,000원  
주일헌금 ..... 6,434,000원

입당	121	봉헌	511, 332, 213	성체	197, 496, 169	파견	123
----	-----	----	---------------	----	---------------	----	-----



주님께서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